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2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2. 26.(목) 17: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안인수 위원,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박종일 위원, 이현규 위원(이상 11인)
- 불참위원 : 박배현 위원, 이지호 위원, 천현진 위원(이상 3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이상 5인)

2026년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경영심의센터장

회의에 앞서 지난달 위촉된 이현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LG화학 주재임원 이현규. 귀하를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여수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호인.

(위촉장 전달 진행)

감사합니다.

이어서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월 들어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되면서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6·3 지방 동시 선거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예비후보 등록과 정치권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선거라는 큰 이슈 속에서 전남 동부권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역 산업과 일자리, 인구 감소, 산단 불황과 같은 현실 문제들이 충분히 조명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수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냉정하게 담아내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수MBC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위원님들 모두 오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죄송합니다. 오늘 5시부터 도지사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있어 먼 길 오신 분들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지방선거가 D-100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축제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 D-100을 기점으로 취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향을 세웠

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자질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슈와 쟁점이 되는 사안들, 시민들이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찾아 심층 보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위원님께서 늘 저희 뉴스에 기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장입니다.

2월에는 정규 프로그램 편성 및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 지난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설을 맞아 특집 편성을 준비했습니다.

당초 1월부터 준비하려 했으나 일정상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에 설 특집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당신의 동화책」 1·2부와, 몇 해 전 제작된 지역 소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애니멘터리 이야기 여행, 여기는 말이야」 1·2부를 방송하였습니다. 백도와 선암사 쌍향수를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방문진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제작지원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관련 아이템과 순천 애니메이션 특구 관련 아이템을 기획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에는 AI 토크 콘서트 ‘딸깍’ 을 개최했습니다. 순천 어울림도서관에서 이호성 교수, 이종범 웹툰 작가, 고명환 작가를 초청해 시민 대상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로 편집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캠페인과 라디오 전망대 시사 코너 등을 통해 반영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관련 프로그램도 기획 및 점검 중입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박람회 D-200을 주제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추진 계획입니다. 「트로트 클래스」 올해 방송분 녹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경남 밀양 딸기 시배지 축제 현장에서 녹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월 29일에는 여수 진달래 축제 편을 녹화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날로그 테이프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비 세팅을 완료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진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아카이브 지원사업에도 공모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 아카이브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제작 기획 아이템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관련 여론 수렴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라디오 전망대 뉴스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관련 보도, 인터뷰와 토론, 안다니 극장 등 다양한 코너에서 관련 아이টে을 반영했습니다.

여수 산단 관련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1월부터 '여수 산단 해법 찾기, 섯다운 리포트' 연속 기획을 2월 초까지 방송에 반영했습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에서는 광양 고로쇠 채취, 불수감 농장, 광양 정착기 등 농어촌 아이টে을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보도센터장께서 주요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2월 주요 취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중심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첫째는 행정통합, 둘째는 6·3 지방선거입니다. 그 외에 지역 소멸과 산단 불황 이슈를 지속적으로 취재했습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초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도민 패싱론' 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농 균형 발전 문제와 권역 내 쏠림 현상 우려가 거론되었습니다. 특별법에 총리가 약속했던 5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지역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전남·광주 특별시가 될 경우 주 청사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현재는 통합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행정통합 문제로 선거 구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0년 만에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서상 전남 동부권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와 무산 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시장 선거의 경선 룰 문제와 광주·전남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연간 약 5천 명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 학급 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산단 근로자 이탈로 여수 지역 인구 감소가 특히 심각합니다.

반면 국립의대 설립이 현실화되는 긍정적 소식도 있어 집중 보도했습니다.

올해 신설 기획으로 「이슈 프리뷰」를 매주 일요일 편성해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정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컬 이스케이프」 코너를 통해 금요일에 주말 문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거 보도는 「초점 6·3 현장으로」라는 제목

으로 매일 충실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주요 일정입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 시장·군수는 시작되었습니다. 3월 22일 군 지역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3월 5일은 출마 예정 공직자의 사직 마감일입니다. 4월 4일부터 현직 단체장의 대외 활동이 제한됩니다.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6월 3일 투표가 진행됩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통과 시 준비위원회를 통해 조직·재정·인력 정비와 공공기관 배치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6월 3일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하반기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지난 회의 반영 사항은 제가 참석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께서 행사·사업 분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CGV 광양 LF스퀘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왕과 사는 남자」가 현재까지는 1위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약 652만 관람객이 들어와 영화관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만 영화의 경우를 보면, 2025년에는 천만 영화가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범죄도시4」가 천만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파묘」와 「서울의 봄」 이후 현재까지 천만 영화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현재 652만인데, 천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조율해 주셔서 「한란」이라는 제주 4·3 영화도 특별 대관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올해 2026년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4월 12일 광양 둔치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여수MBC가 주관하고 MBC경남과 공동으로 영호남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천 명 접수로 신청을 받았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원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일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왜 더 받지 않느냐는 문의도 있었는데, 마라톤이 현재까지는 일반 시민들께도 호응이 좋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모사업과 관련해 어제 서울에서 오전 10시에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입찰 PT까지 마쳤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주 또는

그다음 주가 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3월 기본 계획입니다. 4월 12일 마라톤 행사 현장 준비를 포함해 전반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여수 낭만버스킹은 3년 차 운영 중이고 올해도 3월 중 공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낭만버스킹 행사도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채봉문학상 등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2025년 MBC 권역별 시청률 조사 결과에 대해 이진호 경영심의센터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경영심의센터장

닐슨미디어코리아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MBC 권역별 시청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수MBC 연간 평균 시청률이 5.5%로 나타나 전체 지역MBC 중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광주MBC가 저희보다 다소 높았고, 나머지 계열사보다는 여수MBC가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목포MBC는 3.8%로, 전남권 내에서도 목포MBC에 비해 여수MBC가 전남 동부권 권역에서 높은 브랜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KBS1, KBS2보다도 시청률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민방은 2.2%로 집계되어 KBC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MBC 전국 16개 중 두 번째가 5.5%입니다. 동부 지역에서 SBS KBC가 2.2%이고, KBS2와 KBS1이 5.0%입니다. KBC 같은 경우는 동부 쪽 방송이 전체 방송에서 3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여수MBC는 거의 90% 이상이 동부 지역에 방송이 나가는데도 시청률이 높게 나온 부분은 그동안 MBC 구성원은 물론 센터장님들의 노고가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견을 들겠습니다. 안인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안인수 위원

제가 첫 대면으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제가 앞으로 순서가 와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뒤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할 말은 많습시다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수산단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산단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력 수요 분산 등을 목적으로 당초 전기료 인하는 어렵고 발전소가 근처에 있는 지방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진행은 전력 수요 분석 목적이라는 이유로 주간 요금을 인하하고 야간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기

요금 개편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수산단처럼 2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야간 가동 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4시간 운영이 필수인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주간 요금 인하와 야간 요금 인상 구조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원가 문제를 넘어, 여수·순천·광양 지역은 24시간 운영되는 업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 경쟁력, 투자 유치, 고용 안정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지역 정서를 반영하는 목소리가 더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이나 동부권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는 논의 아래 진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부권 관점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 산업 구조가 통합 체제에서 어떻게 재편될지, 동부권이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찬반을 떠나 동부권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통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도 동부권 관점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성주 위원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수MBC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MBC 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올림픽 방송을 했을 때 JTBC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제공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축소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인수 위원님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에는 희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지역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비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인구 유출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수MBC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순천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광양에 2차전지 산업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수 지역에서는 상가 축소나 생산량 감소 같은 이야기만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부가 소부장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시민들이 ‘조금만 버티면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지역 이탈 흐름에 합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다음은 박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병현 위원

오늘 급하게 진료를 마치고 여수를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코스피 6천을 찍고 반도체가 매우 잘 나가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1년 이익이 보도에서 200조, 300조씩 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내려오면서 이 정도면 전 국민이 1년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 정도 재원이면 요청해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단 관계자들이 계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산단과 관련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이가 지금 100세 정도인데 심폐소생을 열심히 해서 살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의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MBC에 제안드릴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수 섬 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여수 섬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날 때마다 관심이 있어 들어가 보는데, 정말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정표부터 해서 전반이 너무 열악합니다.

항상 MBC가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견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3개월 전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일정표에는 9월 6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날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티켓 발행과 사전예약도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티켓 발행 자체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현장 예약을 하려 해도 전화번호 하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섬 박람회와 관련해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어민들을 위해서는 부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부표가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신소재로 모두 교체되어 스티로폼을 없애고 다른 소재로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작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바닷가에 가보면 절반 정도 또는 30% 정도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지방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행정통합 발표 이후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놓쳤나 생각해보니 TV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TV를 보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놓쳤던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나 잠깐 누워 있을 때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보며 거기 나오는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5.5% 시청률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대단한 일인데, 예를 들고 싶은 것은 광주 KBC입니다. 네이버 포털을 보면 주요 언론사로 KBC가 들어가 있습니다. KBC를 구독하면 네이버 화면에 KBC 소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2배가 넘는 여수MBC가 네이버 포털과 협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인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독자적으로 힘들면 광주나 목포와 같이 연합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지 않더라도 네이버를 스크롤하며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 같고, 시대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MBC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기본 전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디지털 전환과 포털 입점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4년 전쯤 지역 미디어 중심으로 네이버 입점에 가점을 줘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MBC가 연합 형태로 추진했는데, 저희도 광주·여수·목포가 연합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광주에서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어 누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KBC가 선정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도 그 부분은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휴 체계가 다시 새롭게 구축되면서 다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와 별개로 디지털 전환은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쉽고 편하게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를 원하시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시청률과 관련해 MBC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MBC는 지역별 권역 범위 내에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KBC는 전국 송출이 가능하고, 여의도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는 등 환경과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검색 제휴에서 KBC가 먼저 노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MBC가 이 정도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섬 박람회 관련 지적과 질문도 해 주셨는데, 뉴스에서도 보면 상공인들이 섬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니다. MBC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조애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 조애숙 위원

오늘 출석률이 좋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센터와 보도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통합 논의가 매우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보다도 늦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에도 '9부 능선을 넘었다' 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착 지역 정치권이나 통합시장 후보들조차도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거나 제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극 3특' 등의 취지는 중앙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점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광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반대로 군 단위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여수MBC는 16개사 중 5.5%의 높은 시청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극 3특' 의 정확한 의미를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광주·전남, 특히 동부·서부가 이 정책 기조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통합 시 기대 효과와 우려할 점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짚어주는 심층 보도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이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여수MBC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주간 MBC 뉴스에서도 보도됐던 사안입니다. 여수시와 관련해 동영상 한 건이 있었는데, 음식비와 숙박비가 '바가지 요금'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여수 시민들이 식당 비용 등이 비싸다고 체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동영상 댓글이 750여 개 달렸는데, 제가 댓글들을 확인해보니 '여수를 방문했는데 정말 비쌌다', '바가지를 쓴 느낌이었다' 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히 5월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으로서 짚어야 할 부분을 여수 MBC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취산 진달래 축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곧 진달래 축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영취산에 가면 진달래가 무릎이나 허리 정도 높이에서 피어 산책하며 보면 힐링이 되는 좋은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진달래가 잘 자라지 못하고, 꽃을 보려면 터널식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축제 진행 전에 MBC가 불편함은 없는지, 축제를 진행하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꽃이 피고 진 뒤에는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다음 해에 새순에서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그런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는 그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주소가 통합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보니 ‘광주특별시 순천시 서면 산단...’ 과 같이 표기되더군요. 아마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천지연 위원

지난 회의가 1월 29일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1박 2일 동안 여수에서 베네치아에서 학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린바이오 지산 캠퍼스 단장을 맡고 있는데, 글로벌 대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그린바이오 지산 캠퍼스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학과 지산을 연계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성과 발표, 학생들의 취업 행보까지 포함해 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 순천시의회 관계자분들도 오셨고 여수시 의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원 대표님이 인사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1박 2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다음 날 아침에는 제가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않았는데도 직접 축사를 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알차고 유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그린바이오 순천대학교 지산 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학은 ‘유니버시티(University)’ 라고 합니다. 저는 이를 ‘유니버 + 시티’ 라는 개념, 즉 ‘유니버시티’ 라는 개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대학이 교수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고, 필요하면 개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로 기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기조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소멸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은 학생만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으로 나가 유기적인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가 순천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순천시와만 협력해야 하고, 여수시는 전남대가 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글로컬 사업을 할 때도 저희 총장이 여수시와 LG화학 등과 협력 논의를 하러 갔을 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순천대학교를 지원하느냐, 여수에는 전남대가 있는데’ 라는 식으로,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마음의 테두리, 즉 벽이 매우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순천대학교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순천·여수·광양이 함께 잘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이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동부권이 다시 하나로 묶여 유기체처럼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보도할 때도 ‘하나의 유기체’ 라는 관점이 함께 반영되면서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니버시티’ 개념은 오픈 캠퍼스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캠퍼스 안이 전부가 아니라, 서면이라는 공간을 포함해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순천-서면-승주를 연계하는 오픈 캠퍼스로 구성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반드시 대학 소속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남권에는 좋은 기관과 시설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을 대학이 직접 투자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근 기업이나 기관 시설을 활용해 공유 캠퍼스, 오픈 캠퍼스 개념으로 캠퍼스의 벽을 허물고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 취업 부분도 중요합니다. 학생을 열심히 교육하더라도 지역에 정주해야 하는데, 제가 조사해보니 70%가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취업을 갑니다. 이유는 전남권에 취업할 만한 기업이나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협업해 기술 개발을 하고, 학생·교수·기업이 함께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기업도 성장한다면, 지역 기업이 성장하면서 교육된 인력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게 되어 인구 유출을 줄이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교수와 학생이 강의실 안에서만 하는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라는 것도 순천시만이 아니라, 저는 여수·순천 권역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 구성도 여수·순천 권역에서 많이 오고,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그린바이오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광양의 첨단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도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수와 광양, 여순광 권역 산업 인재가 여기에서 양성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27일에 여수MBC에서 오셔서 취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짧아 전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저녁 뉴스에 저희 행사와 기업체와의 협력 내용이 인터뷰와 함께 보도되었고 학생 인터뷰도 나가 보도가 잘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학교 일' 로만 보이지 않도록, 지역과 관계된 여러 행사들과 묶여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새해가 되어서인지 자료부터 산뜻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동부권이 로컬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로컬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이 MBC를 그만큼 사랑하고 시청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MBC는 로컬 언론으로서 앞으로 더 어떻게 잘해야 할지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콘텐츠에서 「당신의 동화책」과 「애니멘터리」를 보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덜 세련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시대로 간다고 하면 여수MBC가 이를 좀 더 고급화했으면 합니다. 요즘은 긴 콘텐츠보다 그림과 영상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러한 시도 자체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더 고급화할 것인지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매우 좋았고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합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보도센터장이 바뀌어서인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도가 상당히 엷지 있게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가 온통 행정통합, 전남·광주 통합, 후보들의 출판기념회, 출마 기자회견 등으로 채워지다 보니 전남 동부권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는 부족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또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세상이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뉴스가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인데, 여전히 지역민들은 통합시장에게 어떤 자격과 자질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광주·전남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민들이 바라는 통합시장의 자격과 자질이 무엇인지, ‘통합시장은 이런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광주·전남이 나뉘지 않았을 때는 서부권 사람들은 광주로 학교를 많이 갔기 때문에 광주와 서부권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부권은 그전에도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통합으로 가면서 동부권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부권 지자체, 국회의원, 지역 시민사회 등이 TF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간담회를 갖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한두 꼭지 정도 특집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문제 제기는 잘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던진 뒤 시민이 바라는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쑥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엇그저께 상영한 「한란」이라는 영화는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매우 잘 만든 영화입니다. 여수MBC가 도움을 주시고 할인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취재가 나온 것도 좋았는데, 관객이 나중에 꼭 찾음에도 영상 첫머리에는 뒷자리에 몇 사람만 있는 장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행사에서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한란」이라는 영화이므로, 행사의 취지와 영화의 내용이나 장면이 먼저 설명되면서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는 「한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영상을 잡을 때 행사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보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핵심을 먼저 잡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양 LF CGV 관련해서도 여러 분들께 항의를 받았는데,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LF 앞에 안내판을 만들어 CGV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현재 상영되는 영화가 무엇인지 등을 표시해두면 어떨까요. 그러면 쇼핑하다가 영화 상영 정보를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수MBC가 있어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목소리를 낼 것도 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어서 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저는 매년 학생들과 함께 와온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는 바다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을 설정해 해당 구역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해양 쓰레기 양을 가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킬로그램씩 주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를 마친 뒤 효천고 학생 중 한 명이 그 결과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킬로그램씩만 주우면 해양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해수욕장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떠오르면서, 이번 여수 섬 박람회 전에 20년 전 순천에서 진행되었던 ‘동천 살리기 운동’ 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MBC, 학교, 행정,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동천 살리기 운동을 했고, 그 경험이 전 시민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사회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 시절에 이러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를 위한 행동과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시민 1인당 몇 킬로그램씩 주우면 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자가 주운 양을 인증 사진으로 남기는 등 전 시민운동 차원에서 섬이나 해안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섬 박람회 전에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읍·면 단위가 더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읍·면 자치가 다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1957년경에는 몇 년간 읍·면 자치가 시행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고령이다 보니 주민들이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합니다. 마을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면 전체 차원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각 마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마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읍·면 단위일수록 권한이 주민들에게 있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다시 복구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올 때마다 농어촌 뉴스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농어촌 관련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율적으로라도 농어촌을 균형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종은 위원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수MBC 뉴스를 자주 시청합니다. 뉴스데스크를 못 보면 다음 날 아침 유튜브로 찾아보거나, 오전 7시 20분경 뉴스를 항상 시청합니다. 얼마 전 1월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다가 단비가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단비 기자가 리포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김단비 기자가 등장해 “1월 내내 가물었던 여수에 단비가 내렸습니다”라고 리포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땅을 만지는 장면까지 포함해 정말 뉴스 구성이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김단비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rain@ysmbc.co.kr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단비가 내릴 때는 김단비 기자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홍수 때는 제외입니다. 농담입니다.

편성도 좋았고, 타이밍도 적절했습니다. 저는 AI를 활용해 김단비 기자에게 헌정하는 랩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틀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단체방에 공유하겠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공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대정비 작업을 합니다. 현재 상반기 대정비 작업은 사전 준비 단계이며, 3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됩니다.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 지역 물품을 구입하고, 연 인원 약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무재해·무사고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면 지역경제에 단비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일 위원

여수 산단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은 위원

어제 월금날이었는데, 저희는 보너스가 나와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유가가 요동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등에 제재를 가하면서 그동안 저가로 공급되던 원유가 막히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었던 구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재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석유화학 업체에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고, 중국산 저가 제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문 임원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종일 위원

제 발언이 끝난 뒤 LG 측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정상적일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4~5조 원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조 원 정도로, 반토막 이하였습니다. 다만 광양제철소는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포항제철소는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일부 제품은 영업이익률이 8% 수준이고, 전기자동차 모터용 특수강과 같이 다른 곳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제품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약 18억 톤인데, 이 중 중국이 10억 톤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약 6천만 톤, 그중 포스코가 3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철강이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이 교란되었는데, 중국이 올해 초 철강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체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작년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전기로는 전기를 막대한 양으로 사용합니다. 설비 하나가 순천시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1.7~2.8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정부가 책정하는 구조인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어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정용 요금 인상 문제와 연결되어 산업용 요금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계 내에서 전력 사용 구조에 따라 요금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안전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약 2만 5천 명이 출입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소규모 기업 사고는 짧게 보도되지만, 포스코 사고는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의 절반 이상을 안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제는 그 문화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단기간에 문화가 바뀌어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어떤 분은 교육이 중요하며, 초등 교육부터 안전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도 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조금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개선의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동부권 소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유력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동부권이 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립의대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지 않았나요?

○ 박병현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박종일 위원

전남대병원이 있음에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산단이 밀집한 동부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상대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동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서도 MBC가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천지연 위원

말씀 중에 덧붙이겠습니다. 순천대도 의대 유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와 순천 통합을 전제로 의대 유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의대와 병원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부권이 의료 수요가 더 높다는 논리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서부권이 단일 목소리를 내는 반면 동부권은 여수·순천·광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여순광부터 먼저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대 유치 문제는 희망을 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관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총장님과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화학 이현규 상무님께서 여수MBC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이현규 위원

간단히 소개만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도 있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본사와 여러 사업장을 거쳤고, 다시 여수로 온지는 3년 차입니다. 이전에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남인수 위원님은 작년 말 좋은 기회로 퇴직하셨고, 올해부터 제가 시청자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 명함에 '주재임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재임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재기자' 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공장 규모가 작았을 때는 공장에 임원이 한 명 정도 있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임원이라는 의미에서 '주재임원' 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수공장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 부문은 별도의 생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외협력, 인사, 노경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현재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LG화학 법인 전체 실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IR 자료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산 수치가 혼재되어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조 3천억 원 흑자였으나, LG화학 법인 단독으로 보면 약 2천억 원 적자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 흐름이 일부 바뀌고 있고, 중국의 급격한 증설로 인해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난다면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을 얼마나 적시에 개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스페셜티 제품은 고정된 품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범용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석유화학 기술은 대부분 해외 도입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지도'를 보며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도 밖을 나침반을 들고 탐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발해야 하지만, 자원과 투자 방향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를 강화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공급 구조와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잘해서 돈을 번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컸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기술력과 인재 양성,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진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섬박람회, 여수 산단 문제, 행정통합과 6·3 지방선거에서 여수MBC의 역할, 환경과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측에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하여 뉴스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단순한 개인 제안이 아니라, 여수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제작과 보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